

한국어 및 한자음의 어휘확산적 변화 연구

이 상 역

(서울대 인문대 국어국문학과)

1. 서 론

이 연구의 목적은 15세기부터 19세기말까지 나타난 음운변화 및 형태변화의 결과를 개별적인 어휘들이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다. 따라서 문헌들에 대한 계량적 검토를 근거로 실증적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의 이론적 근거는 William S. Wang의 일련의 논문들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음운변화의 점진적인 어휘확산에 관한 그의 이론은 음운변화에 대한 예외 없는 규칙성의 가설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음의 변화는 순간적으로 일어나지만 그러한 변화가 전체 어휘에 확산되는 과정은 매우 점진적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Wang의 입장은 폭넓은 지지를 얻어 80년대 이후에는 음운변화 이외에 형태변화나 통사변화에 있어서도 어휘확산의 현상을 검토하고 확인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어휘확산과 단어 사용 빈도간의 관계를 좀더 정밀히 검토하는 방법을 연구한 작업의 결과에 따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작업은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15세기부터 19세기말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문헌들의 검색을 토대로 하여야 하는 까닭에 많은 문제와 제약을 가지고 있다. 자료의 검색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또 출현빈도수 산출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일단 본 작업은, 굴절어미가 붙는 복잡한 형태를 피하고, '부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검토 대상이 된 문헌자료들은 1447년 훈민정음 언해본으로부터 1900년 신약전서에 이르는 약 408권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어서 다소간의 오차는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나 전체적인 어휘확산의 양상을 살피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록 4>에 제시한 문헌의 목록과 시대별 문헌의 분량을 참조하기 바람.)

<제2장>의 부사들의 용례는 모두 158 항목에 이르는데 빈도수가 가장 많은 형태를 표제어로 하여 일련 번호를 붙여 놓았다. 연도별 부사 출현을 나타낸 표에서 모음·자음별 음운변화를 찾아 <제3장>에 정리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몇 개의 항목을 추출하여 세기별 분포를 보다 정밀히 살펴보았는데 이를 <부록 1>이라 한다. (선별된 표제항은 4, 5, 11, 19, 24, 25, 27, 28, 31, 34, 54, 70, 76, 77, 87, 99, 115, 116, 120, 126, 127, 128, 131, 136, 150, 154, 155항들이다.) 그리고 본문 다음에는 좀더 정밀한

어휘확산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바야흐로’의 2 경우만을 국한하여 아예 문헌별 출현빈도를 확인하였는데 이를 <부록 2>라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국어 음운사에 있어서 대표적 용례라 할 수 있는 부사 이외의 20개 항목들의 출현빈도를 참고로 첨부하였는데 <부록 3>이라 한다. 끝으로 자료의 서지적 특성을 <부록 4>의 ‘출전문헌’을 통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자.

2. 부사의 시대별 빈도 조사

본 작업은 앞서도 말했듯이 ‘부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시대별 빈도 조사를 통해 점진적인 어휘확산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를 살피기 위해서 고립 형식인 부사가 곡용이나 활용을 하는 명사나 동사 범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쾌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잠정적인 가정에 근거한 것이다. 다음의 예들은 부사들 가운데에서도 비교적 다양한 異表記를 보여주고 있는 경우들로 최초 출현년도와 최후 출현년도를 밝혀 놓은 것이다. 그리고 각 형태의 뒤에는 출현기간 중에 나타난 빈도수를 괄호 속에 밝혀 놓았다.

아래의 부사들의 경우는 ‘ㄱ, ㄴ, ㄷ…’의 순서로 배열하였고 모음의 경우 아래 ‘.’를 마지막으로 배열하였음을 참고하여 자료를 살피면 될 것이다. 특히 다음 <표 1>에서 3개 이하의 출현빈도를 보이는 경우는 ‘-’를 사용하지 않고 출현하는 연도를 각각 ‘;’로 열거하여 밝혀 놓았다.

▼가온디(가운데)▼1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가온디 (2)	1459				
가온디 (605)	1447	-----			1900
가온디 (1)	1489				
가온대 (345)	1481	-----			1895
가온대 (8)				1797	— 1887
가온디 (2)			1617, 1632		

순경음을 가진 어형은 15세기에 잠깐 보이고 ‘빙>w’의 공식에 따라 ‘가온디’ 혹은 ‘가온대’의 형태가 주로 나타난다. 19세기까지 ‘가온-’의 형태만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표기의 특성을 고려한다 하여도 ‘가운데’의 출현은 모음조화의 붕괴가 철저히 진행되는 근대 이후의 일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제3음절 모음의 변이는 아래 ‘.’의 불안정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중간 2 -157 항은 생략)

▼힝혀(행여)▼158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힝혀 (7)	1461	—1500			
힝혀 (139)		1517	—————		1876
힝여 (8)			1600—	1774	
힝혀 (1)				1774	
행여 (0)					
행어나 (1)					1895

15세기의 ‘ㅇ’은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이 단어에서 16세기 이후에는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16세기 이후 절대적인 출현빈도를 보이는 ‘힝혀’는 그 실제 발음에 있어서 15세기형과 다른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힝여’를 통해 17세기 이후 ‘ㅎ’의 수의적인 탈락이 문면에 드러났으며 현대국어의 ‘행여’는 보이지 않지만 19세기에 ‘행어나’가 보이는 것으로 보아 이미 그 이전 시기에 ‘행여’와 같은 형태의 등장을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어휘확산의 실제 국어례

앞 절에서 보인 바와 같은 실제 정밀한 조사에 근거하여 각례들 속에 숨어있는 음변화의 경우들을 추출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고찰대상>

A. 모음변화

	적례	중간례	반례
I 제1음절에서의 $\Delta > a(\cdot > \uparrow)$	20	3	2
II 비제1음절에서의 $\Delta > i(\cdot > \text{—})$	22	5	13
III 비제1음절에서의 $\Delta > o(\cdot > \downarrow)$	6	10	7
IV $o > u(\downarrow > \uparrow)$	13	5	2
V $o > i(\downarrow > \text{—})$	7		
VI $i > u(\text{—} > \uparrow)$	4	4	

	적 레	중 간 레	반 레
VII 'i'모음 역행동화	3	4	4
VIII 제2음절의 $\Delta, i > i$ (·와 $\rightarrow $)	4		1
IX $yey > ey$ (케 > कै)	2	3	3
X $ya > a$ (ㅑ > ㅓ)	1	7	3
XI $y\ae > \ae$ (ㅋ > ㅋ)	6	5	
XII $yo > o$ (ㅛ > ㅜ)	2		3

B. 자음변화

	적 레	중 간 레	반 레
I $\beta > $ (봉 > ㅇ)	12		
II $z > $ (Δ > ㅇ)	11		
III $hh > h$ (ᄃᄃ > ᄃ)	1	1	
IV $cc > c(sc)$ (ㅉ > ㅉ[ㅉ 표기출현])	2		
V $s > t$ (ㅅ > ㅈ)	8	1	5
VI $t > c$ (ㄷ/ㅌ > ㅈ/ㅊ: 구개음화)	7	1	3
VII $l > n$ (ㄹ > ㄴ)	2		
VIII $k > s$ (ㄱ > ㅅ)	5		4
IX $h > $ (ㅎ > ㅇ (-hi: -i/-히: -이))	6	5	9

A. 모음변화

I. 제1음절에서의 $\Delta > a$ (· > ㅓ)

위에 보인 고찰대상 목록 가운데 우선 '모음변화'에서 '제1음절에서의 · > ㅓ'부터 실례를 들어 밝힌다. 연도는 () 속에 쓴 것이 바뀔 형태에 관한 것이고 '1' 뒤에 쓴 것이 바뀐 형태에 관한 것이다. 제시 순서는 바뀐 연도가 이른 형태부터 보이겠다. 그리고 바뀐 형태의 수효가 총수에서 얼마나 차지하는가, 즉 전체에 대한 비율을 '아닥 1/29'나, '자로 13/437'(13이란 숫자는 '자로 8'에다 후기에 나타난 '자조 3'와 '자주 2'까지의 합산)식으로 보였다. 이 비율이 기대보다 낮은 비중(또는 수량)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변화의 단초와 추세를 보인다는 점이 중요한 것이며 이 연구에서

그 수량의 다소는 차후에 결론을 내릴 때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문제다.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전체에 대한 비율 (바뀐 수/총수)
1)						
ataki 아득기(7)	(1459	—————	1632)			
cf. atak 아득(4)			1575			
atak 아득(1)			1575			1/29
2)						
calo 조로(93)	(1447	—————	1876)			
calo 자로(8)			1600	—————	1895	13/437
3)						
chama 차마(172)	(1447	—————	1882)			
chama 차마(10)			1600	—————	1895	13/375
4)						
machamnay 마춤내(282)	(1447	—————	1797)			
machamnay 마춤내(3)			1632	—————	1852	14/720
5)						
hankalkat ^{hi} 한골갓티(62)	(1517	—————	1792)			
hankalkat ^{hi} 한골갓티(1)			1632			2/196
cf. hankalkasti 한골갓디(1)			1745			
6)						
hamalmye 함몰며(353)	(1447	—————	1792)			
hamalmye 함몰며(2)			1658	1737		15/711
7)						
yosai 요사이(151)		1517	—————	1881		
yosai 요사이(3)			1676	—————	1895	3/180
8)						
payahilo 배야호로(78)			(1617	—————	1852)	
payahilo 배야호로(20)			1700	—————	1887	20/340
9)						
chalhali 차하리(78)	(1464	—————	1900)			
chalalo 차라로(1)			1728			5/160
10)						
hayekom 해여곰(876)	(1517	—————	1900)			
hayekom 해여곰(2)			1736, 1792			3/1258

11)			
hamskiy	함씨(327)	(1500 ————— 1900)	
hamskiy	함씨(175)	1737 — 1895	176/768
12)			
sela	서력(528)	(1475 ————— 1795)	
sela	서라(1)	1744	1/3035
13)			
macamak	마즈막(18)	(1459 ————— 1900)	
macimmak	마즘막(1)	1763	10/31
cf. macamak	마즈막(1)	1795	
14)			
palsye	발서(182)	(1461 ————— 1852)	
palsye	발서 (22)	1763 — 1900	22/233
15)			
chalyeylo	차례로(41)	(1481 ————— 1900)	
chalyeylo	차례로(3)	1772, 1778	3/48
16)			
cyekintas	저근닷(2)	(1600 — 1772)	
cyekintas	저근닷(2)	1776	2/47
17)			
camo	조모(152)	(1463 ————— 1796)	
camos	자못(4)	1796 — 1852	4/264
18)			
nacaki	나작기(80)	(1459 ————— 1772)	
nacaki	나작이(1)	1805	1/93
19)			
hansyaŋ	항상(99)	(1575 ————— 1900)	
hansjaŋ	항상(17)	1852—1895	39/141
20)			
hayŋhye	행혀(7)	(1461 — 1500)	
hayŋyena	행여나(1)	1895	1/156

위의 20 단어가 바뀐 시기를 일별해 보면 1575년부터 1895년까지에 걸쳐 점진적으로 $\Lambda > a(\cdot > \text{ㅏ})$ 의 변화가 확산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변화는 20 단어에 걸쳐 일률적으로 잘 일어나고 있어 예외가 보이지 않는다. 부사만을 대상으로 했기에 20 단어만 집계되었지만 다른 단어 무리를 조사해 보아도 이 변화는 예외가 거의 없이 언제고

일어날 것이다.

<고찰대상>에서 중간례로 집계한 다음 3개의 경우는 적례도 반례도 아닌 것들이다.

21) ayyalΛsi	애야ரச이(2)	1481, 1632	ayyala	애야라(4)	1481, 1632
22) casyeyhi	츠세히(79)	1482 — 1900	casyehi	차서히(2)	1496, 1670
23) aolnΛ	아올느(1)	1887	aulina	아올나(1)	1887

이들은 1481 또는 1887년이란 같은 해에 일어났거나, 22)의 경우처럼 14년간이란 차이 밖에 나지 않는다. 적어도 한 세대가 바뀌는 30년은 차이가 나야 할테니, 22)가 Λ>a(·>ㅏ)의 변화를 입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예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소수례들이 전체 변화 방향에는 크게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편 다음 2례는 ㅏ가 ·보다 앞선 반례를 보인다.

24) cayenhi	자연히(3)	1446	cΛzyenhi	츠연히(10)	1489 — 1517
25) honca	혼자(128)	1517 — 1900	honcaΛ	혼즈(13)	1600 — 1900

II. 비제1음절에서의 Λ>i(·>ㅡ)

우선 이 변화가 일어난 단어 22개를 시대순으로 먼저 보이기로 한다.

	15 c.	16 c.	17 c.	18 c.	19 c.	전체에 대한 비율 (바뀐 수/총수)
1)						
tamΛn	다몬(166)	(1447 ————— 1776)				
tamin	다몬(28)	1500 ————— 1869				28/1044
2)						
melccΛki	멜쯔기(1)	(1489)				
melcisi	멜쯔시(2)	1500 1670				6/8
3)						
etiystΛn	어디쑤(3)	(1475 — 1517)				
etiystin	어디쑤(1)	1517				1/33
4)						
ancΛk	안죽(48)	(1447 ————— 1749)				
ancik	안죽(8)	1517—1586, 1632				11/463
5)						
alΛmtye	아름더(9)	(1461 ————— 1632)				

alimtye 아름답(3) 6)	1518		5/14
hamalmye 함몰며(353) (1447	—————	1792)	
hamilmye 함믈며(320) 7)	1586	————— 1900	330/711
poyyahalo 뵤야호로(65) (1447	—————	1737)	
poyyahilo 뵤야호로(6) cf. poyahalo 보야호로(31) (1461	1586	—————1737	208/340
poyahilo 보야호로(67) 8)	1586	————— 1792	
palA 바르(305) (1459	—————	1737)	
pali 바르(2) 9)	1632, 1676		2/480
naciki 누즈기(80) (1459	—————	1772)	
naciki 누즈기(3) 10)	1635, 1670	1765	3/93
alamtai 아름다이(61) (1465	—————	1852)	
alimtai 아름다이(3) 11)	1658	1736 1876	5/72
camas 즈뭇(23) (1586	—————	1792)	
camis 즈뭇(24) cf. camat 즈뭇(4)	1658	—————1758	25/264
camit 즈뭇(1) 12)	(1617	—————1752)	
1748			
yoclam 요즈음(3) (1632—1669)			
yocim 요즈음(1) 13)	1670		1/18
canakcanaki 즌죽즌죽기(31) (1447	—————	1632)	
canikcanik 즌죽즌죽(2) 14)	1728, 1763		2/36
saltali 솔드리(1) (1649—1659)			
saltili 솔드리(1) 15)	1728		5/6
mac ^h amnay 막춤내(720)(1447	—————	1797)	

mac ^h imnay 막춤내(2) 16)		1728, 1765	2/720
onalsnal 오날날(66) (1447 ————— 1632)			
onilnal 오늘날(4) 17)		1737 —1881	4/146
molamay 모름매(1) (1632)			
molimi 모름이(2) 18)		1763—1777	11/1103
cyekintas 저근듯(2) (1600 1772)			
cyekintis 저근듯(2) 19)		1764	2/47
macamak 마즈막(18) (1459 ————— 1900)			
macimak 마즈막(1)		1768	10/31
(이 예는 $\Delta(\cdot)$ 의 존속시기가 $i(-)$ 보다 아주 더 긴 것이 특이하다.)			
cf. macamak 마즈막(1) (1795)			
macimak 마즈막(8) 20)		1869—1887	
at ^h ak ^h i 아득히(10) (1459 ————— 1632)			
atik ^h i 아득히(2) 21)		1795 1882	2/29
tol ^h ahye 도르혀(277) (1465 ————— 1737)			
tolihye 도르혀(2) 22)		1880—1881	2/752
hank ^h al ^h at ^h i			
훈글웃티(41) (1461 ————— 1635)			
hankilkasc ^h i			
한글갓치(1)		1887	1/196

위의 22예들과는 반대로 $i > \Delta(- > \cdot)$ 의 방향으로, 또는 $i(-)$ 형이 $\Delta(\cdot)$ 형보다 먼저 나타나는 반례들이 조사 대상 중에 13예나 있다. 이 예들은 $\Delta > i(\cdot > -)$ 의 변화에 유추되어 후기에 오히려 $\Delta(\cdot)$ 로 적는 역표기를 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23) kut^hiyye 구튀여(293) 1447 — 1752

kut^hayye 구튀여(33) (1617 — 1758)

24) nencisi 년즈시(13) 1463 — 1728

nencasi 년즈시(1) (1797)

25) mulis 무릫(146) 1682 — 1881

mulas 무릫(36) (1756 — 1788)

26) pɔypɪli 비브르(23)	1481 — 1758	pɔypɪlɔ 비브르(1)	(1517)
27) sisilo 스스로(632)	1467 — 1796, 1895	sisɔlo 스스로(819)	(1617 — 1900)
		sɔsilo 스스로(1)	1774
28) sihiɕ 시혹(1)	1465	sihɔɕ 시혹(1)	(1500)

<둘다 한 예씩만 보이므로,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던 'sihok(시혹)'의 잘못된 표기일 가능성이 많다.>

29) ecilei 어즈러이(165)	1461 — 1882	ecɔleɪ 어즈러이(4)	(1600 — 1617)
30) izikko 이숙고(29)	1463 — 1518	ɪɔkko 이숙고(1)	(1617)
31) imiy 이피(709)	1500 — 1895	imɔy 이피(19)	(1600 — 1736)
32) it ^h isnal 이툰날(17)	1447 — 1881	it ^h ɔnnal 이툰날(41)	(1617 — 1772)
33) ilcik 일죽(784)	1461 — 1895	ilɕɔk 일죽(79)	(1736 — 1900)
		cf. ilɕɔki 일죽기(2)	(1632 — 1670)
34) cimcis 짐춧(47)	1475 — 1880	cimɕɔs 짐춧(3)	(1677 — 1761)
35) c ^h eim 처음(46)	1632 — 1900	c ^h eɔm 처음(6)	(1690 — 1777)

그 밖에 ɔ(·)와 i(—)가 30년 이내의 거의 동일 시기에 나타나는 중간례들이 5어 있다.

36) pantɔki 반드기(1446)	1459—1637	pantiki 반드기(1)	1463
cf. pantasi 반드시(1556)	1481—1900	pantisi 반드시(16)	1517—1876
37) pentɔki 번드기(1)	1463	pentiki 번드기(50)	1447—1632
cf. pentasi 번드시(3)	1608—1746	pentisi 번드시(10)	1461—1761
38) selɔ 서르(528)	1475—1795	seli 서르 (1930)	1447—1749
39) milɔs 므룻(36)	1600—1900	milis 므룻(146)	1600—1900
40) molomɕɔki 모름죽이(2)	1761—1788	molomɕiki 모름죽이(18)	1736—1881

이상의 3가지 적례, 반례, 중간례들의 비율로 보아, 비제1음절에서의 ɔ>i(·>—)의 변화는 완전히 지배적인 추세는 못되었고 대략 3/5 정도를 점하는 추세로 1500년부터 1887년 사이에 확산되어 갔음을 알 수 있다.

III. 비제1음절에서의 ɔ>o(·>ɔ)

이 변화는 적례가 6, 중간례가 10인데 비해 반례가 7이나 되어 실제로 이 변화가 국어사에서 흔히 거론하듯 뚜렷한 추세를 이루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6개의 적례는 다음과 같다.

	15 c.	16 c.	17 c.	18 c.	19 c.	전체에 대한 비율 (바뀐 수/총수)	
1)							
poyyahalo 피야호로(65)	(1447	—————			1737)		
poyyaholo 피야호로(14)		1517	———		1669	31/340	
cf. palyyahalo 피야호로(2)			(1617	1736)			
palyyaholo 피야호로(1)			1749				
2)							
camo 즈모(152)	(1463	—————			1796)		
como 조모(1)		1583				1/264	
3)							
ayyalasi 애야ரச이(2)	(1481				1632)		
ayyalosi 애야로시(1)		1588				3/24	
4)							
kolai 고라이(2)	(1463, 1481)						
koloi 고로이(7)			1608	—————		1887	42/44
5)							
halo 홀로(155)	(1459	—————			1632)		
hoolo 호올로(13)			1617	—————		1876	328/807
cf. hollo 홀로(130)	1461	—————				1876	
6)							
palypila 비브라(1)	(1517)						
palypilo 비브로(2)			1632			3/55	

거의 동일한 시기에 출현하는 중간례로는 다음 10예가 있다.

7) kaβantay 가분더(2)	1459		kaontay 가온더(605)	1447	—————	1900	
8) kaskalo 잣마로(30)	1459	———	1632	kaskolo 잣고로(33)	1447	———	1795
9) tolAhye 도럭혀(277)	1465	———	1737	tolohye 도로혀(398)	1481	—————	1900
10) pala 바로(305)	1459	———	1737	palo 바로(173)	1482,1600	———	1900
11) selA 서럭(528)	1475						
12) syukolai 슈고라이(1)	1462						
13) oolo 오오로(43)	1447	———	1632	oolo 오오로(8)	1481	———	1752
14) oylai 외라이(10)	1463	———	1632	oyloi 외로이(24)	1481	———	1876
15) cozalai 조수라이(2)	1465						
16) hAβAza 호철사(2)	1445						
			hAozA 호오사(253)	1447	———	1496	
			cf. hooza 호오사(1)	1461, hoza 호사(1)	1514		

나머지 7예들은 $\Delta > o(\cdot > \perp)$ 와 반대로 $o(\perp)$ 형이 먼저 나타나고 $\Delta(\cdot)$ 형이 오히려 뒤에 보인다. 이는 $\Delta(\cdot)$ 의 소실이 시작되면서 원래의 $o(\perp)$ 를 의고적 역표기 $\Delta(\cdot)$ 라고 과도교정해 적어놓은 예들이다.

17) molomay 모로매(768)	1447 — 1752	mol Δ may 모르매(1)	(1632)
18) poyaholo 보야호로(16)	1517 — 1792	p Δ yah Δ lo 보야호로(3)	(1617)
cf. poyah Δ lo 보야호로(31)	1461 — 1737		
19) sonzo 손소(41)	1447 — 1876	sonc Δ 손즈(2)	(1677)
20) sihok 시혹(888)	1447 — 1752	sih Δ k 시혹(1)	(1500)
21) aolo 아오로(108)	1463 — 1852	aol Δ 아오르(2)	(1887)
22) aco 아조(74)	1576 — 1900	ac Δ 아즈(1)	(1608)
23) yocozom 요조솨(4)	1586 — 1632	yoc Δ am 요즈솨(3)	(1632 — 1669)

위와 같은 배분이 부사류에서만 특별히 더 두드러진 것이 아니라면, 비제1음절에서의 $\Delta > o(\cdot > \perp)$ 의 변화는 별로 일반적으로 확산된 것은 아니고 특수한 조건에서 일어난 것이었겠다.

IV. $o > u(\perp > \top)$

$o(\perp)$ 모음의 상승화로 $u(\top)$ 가 되는 현상은 본 대상 자료에서는 ‘ceykum(제공)’이란 예에서 16세기부터 관찰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 주류를 이루는 변화의 다수례들은 1700년부터 1895년 사이에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다.

	15 c.	16 c.	17 c.	18 c.	19 c.	전체에 대한 비율 (바뀐 수/총수)
1)						
ceyyekom 제여곰(99)	(1447	—————1632)				
cf. ce Δ kom 제곰 (5)		(1517	—————1664)			
ceykum 제공(2)		1576		1700		2/115
2)						
selo 서로(487)	(1459	—————1900)				
selu 서루(1)			1700			1/3035
3)						
amoli 아모리(48)			(1600	—————1852)		
amuli 아무리(20)				1728	— 1876	20/93
4)						
kaskolo 갖고로(33)	(1447	—————1795)				
keskulo 것구로(4)			1741	—1795		11/74

5)				
moto 모도(102)	(1447 ————— 1900)			
motu 모두(5)		1774 — 1887		5/629
6)				
mayo 미오(45)	(1461 ————— 1869)			
mayu 미우(11)		1880—1900		12/157
7)				
pyupilo 비브로(2)	(1632)			
cf. pyupulokey 비부로게(1)		(1741)		
pyupulukey 비부루게(1)		1887		2/55
8)				
maco 마조(94)	(1447 ————— 1887)			
macu 마जू(4)		1887, 1895		4/98
9)				
caco 즈조(331)	(1447 ————— 1876)			
cacu 즈जू(1)		1869		3/437
cf. caco 자조(3)		(1900)		
cacu 자जू(2)		1887		
10)				
aolo 아오로(108)	(1463 ————— 1852)			
cf. aolna 아울ㄴ(1)		1887		
aulna 아울나(1)		1887		1/115
11)				
sonso 손소(13)	(1617 ————— 1852)			
sonsu 손수(1)		1895		1/122
12)				
aco 아조(74)	(1576 ————— 1900)			
acu 아जू(1)		1895		1/76
13)				
tomoci 도모지(17)	(1748 ————— 1900)			
tomuci 도무지(1)		1895		1/19

위의 13예와는 달리 거의 동일 시기에 같이 쓰인 예들이 5나 보인다.

14) kyeyo 계오(18)	1517 — 1796	kyeyu 계우(24)	1500 — 1883
15) teok 더욱(595)	1447 — 1900	teuk 더욱(436)	1447 — 1900

16) piloso 비로소(212)	1481 — 1900	pilusu 비루수(11)	1481 — 1632
17) yocozom 요조숨(4)	1481 — 1500	yocuzum 요주숨(1)	1481
18) cicilo 지즈로(94)	1481 — 1632	cicilu 지즈루(4)	1481 — 1632

다음에는 u(ㄷ)가 o(ㅓ)에 선행하는 2개의 반례들도 있다.

19) tulu 두루(234)	1447 ---- 1900	tulo 두로(130)	1517 ---- 1900
cf. tulu 들우(2)	1586, 1794	tulo 들오(1)	1763
20) mulus 물웃(1)	1613	mulos 무룻(1)	1658

이상에서 보아 o>u(ㅓ>ㄷ)의 변화는 18의 예에서 적례 내지 중간례가 보여 그 존재를 충분히 입증했다고 본다.

V. -om>-im(-옴>-음)

접사 '-om(-옴)'이 '-im(-음)'으로 바뀌는 연대도 다음과 같은 점진적 확산의 양상을 보인다.

	15 c.	16 c.	17 c.	18 c.	19 c.	전체에 대한 비율 (바뀐 수/총수)
1)						
cyokom 조금(28)			(1608 ————— 1869)			
cyokim 조금(7)			1600 ————— 1887			9/63
cf. cokom 조금(26)				(1752 ————— 1900)		
cokim 조금(2)					1895	
2)						
yocozom 요조숨(4)	(1481—1500)					
yociim 요즈음(1)			1670			1/18
3)						
hAyekom 히여곰(876)		(1517 ————— 1900)				
hAyekim 히여곰(32)			1682 ————— 1887			45/1258
cf. hAyakom 히아곰(92)		(1500 ————— 1900)				
hAyakim 히아곰(11)				1736—1882		
cf. hAyeyekom 히여곰(232)	(1475 ————— 1796)					
hAyeyekim 히여곰(2)				1783		
4)						
silekom 시러곰(489)	(1481 ————— 1887)					
silekim 시러곰(10)				1736—1887		10/499

5)					
ceyyekom 제여곰(99)	(1447	—————	1632)		
ceykim 제곰(1)				1763	1/115
6)					
kaskom 𪛗곰(11)			(1657 — 1752)		
kaskim 𪛗곰(1)				1795	1/12
7)					
tasikom 다시곰(57)	(1447	—————	1778)		
tasikim 다시곰(3)				1876	3/64

이 변화에서는 중간례나 반례는 보이지 않는다.

VI. i>u(→ㅍ)

순자음 뒤 i(→)모음이 순음화되는 적례에 다음 3가지가 있다.

	15 c.	16 c.	17 c.	18 c.	19 c.	전체에 대한 비율 (바뀐 수/총수)
1)						
piliso 비르소(24)	(1467	—————	1887)			
piluso 비루소(3)		1517	1608—1632			14/569
2)						
milis 므릿(146)			(1600	—————	1900)	
mulis 무릿(32)			1682	—————	1881	49/804
cf. milas 므릿(36)			(1600	—————	1900)	
mulas 무릿(11)				1756—1788		
cf. miliys 물릿(546)	(1447	—————	1796)			
muliys 물릿(2)	1465,			1721		
3)						
mintik 문득(755)	(1447	—————	1900)			
muntik 문득(91)			1617	—————	1900	92/921
cf. mintis 문득(20)	(1481	—————	1632)			
muntis 문득(1)				1776		
4)						
ⲣⲏⲣⲓⲗⲓⲕⲉⲥ 비브르게(7)	(1475	—————	1758)			
cf. ⲣⲏⲣⲓⲗⲓⲕⲉⲥ 비브르게(1)				1741		
ⲣⲏⲣⲓⲗⲓⲕⲉⲥ 비부르게(1)					1887	12/55
ⲣⲏⲣⲓⲗⲓⲕⲉⲥ 비부르게(5)					1887	

다음은 변화 연대가 30년 이내의 중간례들이다. c(ㅈ)뒤의 경우, 즉 4)도 같이 보였다.

5) cizim 즈슴(5)	1463 — 1569	cuzum 주슴(8)	1481
cïim 즈음(23)	1617 — 1900	cuum 주움(3)	1632
6) pilisu 비르수(24)	1481 — 1632	pilusu 비루수(11)	1481 — 1632
7) picyelepsi 브절업시(3)	1669 — 1721	pucyelepsi 부절업시(18)	1669 — 1852
8) picileni 브즈러니(215)	1447 — 1795	pucileni 부즈러니(7)	1721 — 1790

VII. i(ㅣ)모음 역행동화

우선 i(ㅣ)모음 앞에서 역행동화 현상을 보이는 3개의 예들을 보이겠다.

	15 c.	16 c.	17 c.	18 c.	19 c.	전체에 대한 비율 (바뀐 수/총수)
1)						
eyespi 어엿비 (320)	(1447 ————— 1887)					
eyeyspi 어엿비 (2)	1496,1500					3/423
eyyeyspi 에엿비 (1)	1517					
cf. eyespi 에엿비 (1)	1500 ————— 1783					47/423
2)						
ohilye 오히려 (1471)	(1447 ————— 1900)					
oyhilye 외히려 (6)	1579 ———1617					6/1663
3)						
nooyya 노외야 (4)	(1481 ————— 1690)					
noyya 뇌야 (1)						1869
cf. noyye 노외여 (4)	(1500 —————1617)					4/184
noyye 뇌여 (3)	1677 — 1764					

위의 예3)은 단순히 ‘축약’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y의 후행이라는 조건은 갖추었으므로 역행동화에 의한 ‘noy(뇌)-’의 형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다음에는 거의 동시에 등장하는 중간 4)예들이다.

4) palyahilo 비야흐로(28)	1617 — 1852	palyahilo 비야흐로(1)	1617 — 1852
poyahalo 뵤야흐로(65)	1447 — 1737	poyahalo 보야흐로(31)	1461 — 1737
5) sui 수이(275)	1461 — 1852	suyi 쉬이(35)	1461 — 1796
6) ayala 아야라(11)	1481 — 1776	ayyala 애야라 (4)	1481, 1632
7) ceyekom 저여곰(5)	1481 — 1632	ceyyekom 제여곰(99)	1447 — 1632

다음은 i(ㅣ)모음역행동화가 i(ㅣ)모음에 의한 역행동화를 겪지 않은 형태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나타나는 반례 4이다.

8) kuth Δ yye 구퉁여(33)	1617 — 1758	kuth Δ ye 구퉁여(14)	1617 — 1797
kuthiyye 구퉁여(293)	1447 — 1752	kuthiye 구트여(1)	1632
9) s Δ l Δ yye 슝여(6)	1677 — 1765	s Δ l Δ ye 슝여(4)	1765, 1795
s Δ l Δ yye 슝여(5)	1500 — 1670	s Δ l Δ ye 슝여(3)	1657, 1795
10) ayyalosi 애야로시(1)	1588	ayalosi 아야로시(1)	1632
11) h Δ yyekom 햅여곰(2)	1475 — 1796	h Δ yekom 햅여곰(876)	1517 — 1900
cf. h Δ yyekim 햅여곰(92)	1783	h Δ yekim 햅여곰(32)	1736 — 1882

마지막 예11)의 경우는 두 형태의 짝들이 서로 선후가 상반된 연대를 보이는데, 그 사용례의 수를 보면 위의 짝이 압도적으로 많다. 따라서 역행동화한 형이 선행된 반례로 간주하였으나, 사실 역행동화 현상은 현재까지도 실제 발화에서는 흔히 나타나면서도 표기에는 속되다는 느낌 때문에 별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가령 옛부터 쓰인 'kumpeyji(곰뱅이)'는 역행동화가 이미 표기에 반영되었지만, 'kenteki(건더기)'는 아직도 역행동화형을 저항하는 표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발음은 'kenteyki(건테기)'로 흔히 하고 있다.

VIII. 제2음절에서의 $\Delta(\cdot)$, i(ㅡ) 등의 i(ㅣ)로 변화

사소한 변화로 볼 수 있으나, 19세기 후반 이후 제2음절에서 경구개 파찰음 ㄱ뒤의 \cdot , ㅡ 등이 전설모음 'ㅣ'로 변화하는 한 무리의 예들이 있다.

	15 c.	16 c.	17 c.	18 c.	19 c.	전체에 대한 비율 (바뀐 수/총수)
1)						
ecilei 어즈러이(165)	(1461	—————			1882)	
ec Δ lei 어즈러이(4)			1600—1617			
ecilei 어지러이(2)					1883	2/190
2)						
nac Δ ki 늑즈기(80)	(1459	—————			1772)	
naciki 늑즈기(3)			1635 — 1765			
cf. naciki 나직이(0)					20 c.	0/93
3)						
ilcik 일죽(784)	(1461	—————			1895)	
ilc Δ k 일죽(79)				1736 — 1900		
cf. ilccik 일찍(0)					20 c.	0/1014

4)					
nencisi 년즈시(13)	(1463	—————	1728)		
nencasi 년즈시(1)			1797		
cf. nencisi 년지시(0)				20 c.	0/15

1), 3), 4)의 예에서 i(ㅡ)가 ㅏ(·)로도 표기되었던 예는 아래 ·의 소실과 관련하여 의고적 역표기를 한 과도교정 예들이다. 한편 다음 1예는 경구개 파찰음 뒤에서의 전설모음화에 대한 과도교정 예라 할 수 있다. 즉 ‘즈’가 ‘지’보다 더 뒤에 나타나는 반례인 것이다.

5) ocik 오직(2868) 1447 — 1900 ocik 오즉(9) 1876 — 1883

IX. -yey>-ey(-꺠>-꺠)

표기상 어말의 ‘ey(꺠)’가 ‘yey(꺠)’로 변화하는 한 무리의 예들이 다음과 같이 보인다.

	15 c.	16 c.	17 c.	18 c.	19 c.	전체에 대한 비율 (바뀐 수/총수)
1)						
syajsiyey 상시에(8)			(1600 — 1746)			
syajsiey 상시에(7)			1758—1797			7/41
2)						
casyeyhi 자세히(79)	(1482	—————	1900)			
calseyhi 자세히(1)			1792			8/191
cf. casyeyi 자세이(8)			(1632	—————	1852)	
calseyi 자세이(1)				1852		
cf. casyeyhi 자세히			(1748 — 1887)			
caseyhi 자세히				1887		

거의 동시에 ‘ey(꺠)’와 ‘yey(꺠)’가 보여 선후를 가리기 어려운 중간례도 보인다.

3) syajnye 상네(270)	1447 — 1518	syajne 상네(4)	1465 — 1496
4) estyey 엇데(1873)	1447 — 1776	estey 엇데(5)	1465 — 1496
5) moncyey 몬제(6)	1447 — 1632	moncey 몬제(1)	1461

‘ey(꺠)’가 ‘yey(꺠)’보다 앞선 3개의 반례가 보인다.

6) cikcey 즉제(179)	1489 — 1790	cikcyey 즉제(2)	1617, 1632
-------------------	-------------	---------------	------------